

중국 2006년도 중앙1호문건에 대한 기자회견

김 태 곤*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21일 2006년도 중앙1호문건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2일 국무원 공보실에서 중앙재정경제영도소조(中央財政經濟領導小組) 천시원(陳錫文) 부주임이 1호문건 채택과 관련된 배경설명과 ‘사회주의 신농촌건설’ 등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귀위이민(郭衛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공중앙(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과 국무원의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의 추진에 대한 약간의 의견’이 어제 정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중앙재정경제영도소조 부주임이며, 농업·농촌문제 전문가인 천시원 부주임을 모시고 관련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기자 분들은 천시원 부주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천시원 부주임이 여러분에게 중공중앙 1호문건을 소개한 세 번째 해입니다. 천시원 부주임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시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 신화사(新華社)는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의 추진에 대한 약간의 의견’ 전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이 중공중앙 2006년 1호문건입니다. 2004년부터 중공중앙은 농업·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년 연속 1호문건을 채택하였습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aegon@krei.re.kr 02-3299-4241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농촌개혁과 연관을 지어 볼 때 1980년대에 중공중앙은 농업·농촌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5년 연속 1호문건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1호문건은 모두 농촌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호문건도 농업·농촌문제 해결이 주된 내용입니다.

지금 당과 정부는 농업·농촌문제에 대해 특별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은 오늘 주요 언론에서도 이미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보았겠지만 이 문건은 8개 부문 32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건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이해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가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배포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읽지 않고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지 50여년이 되는 역사로부터 당과 정부가 발표한 문건을 보면 50년대 중반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제안하였습니다. 개혁개방 실시이후 20여년간 당과 국가의 많은 문건에도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6년도 1호문건에서 다시 제안하였습니다.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작년 10월 중공중앙은 제16기 5중 전체회의(5중전)를 소집하였는데 5중전에서는 주로 중공중앙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제11차 5개년 계획(‘11.5’)에 대한 건의’를 심의하였습니다. 이 건의에서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의 추진을 제안하였습니다.

5중전의 제안에 따라 중공중앙은 농촌사업회의를 소집하였고, 2006년 1호문건을 제정할 때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제안한 것은 예전에 제안했던 것과 연관이 있으면서, 또한 차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관이 라는 면에서 말한다면 이는 하나의 목표로서 중국 농민들에 대한 풍요로운 생활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예를 들면 50년대 중반 사회주의 신 농촌건설을 제안하였는데 이때 강조한 것은 농촌생산관계에 대한 일부 변화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적 토지를 집단소유로 전환하였는데 개별경영을 농촌 합작사와 인민공사의 통일적인 경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둘째는 당시 국력 특히 정부의 재정능력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농촌건설은 농민자체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것은 그 배경에는 종전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농촌의 생산관계는 현재 명확하고, 또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도 유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산관계는 토지문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중국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농촌은 장기적으로 가족경영을 기초로 통합과 분리가 보장되는 경영 체제를 유지합니다. 이번에 제안한 신농촌건설은 생산관계 측면의 영향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몇 년간 개혁개방에 힘입어 중국 경제는 뚜렷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각급 정부는 농촌건설과 발전에 더욱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우리는 신농촌건설을 단지 노력하려는 방향을 제시하거나, 농민들에게 하나의 아름다운 비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농촌건설을 각급 당과 정부가 사회 각계각층을 인도하여 공동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유도하는 하나의 현실감이 있고 긴박감도 있는 임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종전과 비교하였을 때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중국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후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 당시 중국의 공업화, 도시화 수준은 아주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도시인구가 총인구의 10% 정도였습니다. 현대화 과정에서 농업국을 점차 공업국으로 개조하여야 하며, 공업화와 도시화를 위하여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큰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50년대 이후 80년대까지 중국에서 공업화와 도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촌은 자본

을 제공하는 중요한 부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현재 온전한 공업체계가 되었고, 아름답고 현대화된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광범한 농민들이 제공한 커다란 공헌에 의한 것입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공업도 발전하고 국력도 끊임없이 증대되고 있는데 향후 발전전략은 농민들이 계속 도시와 공업 발전을 위해 공헌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업과 도시 경제가 농촌을 더욱 많이 인도하고 농민을 도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당의 지도계층은 경제현상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중국은 공업이 농업을 살리고 도시가 농촌을 이끄는 발전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이 판단은 2004년말 중공중앙 후진타우(胡錦濤) 총서기가 당시 소집된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제기하였고, 따라서 신농촌건설에 하나의 중요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을 둘러싸고 5중전에서 '11.5' 기간부터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의 역량을 확대할 것을 명확하게 제안하였습니다.

신농촌건설을 제안하게 된 것에는 물론 다른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를 보시면 원인에 대해 5개 측면에서 요약했는데 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 중국 농업의 기초조건이 아직 빈약하여 고도 경제발전과 풍요로운 생활수준의 요구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식량은 현재 생산량이 최근 몇 년간 뚜렷한 회복세로 나타나고 있어 작년 생산량은 4억 8,400만 톤으로서 2003년 대비 5,000여만 톤 증가한 수준으로 증가폭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최고 기록과 비교하면 1998년 보다 2,800만톤 적은 수준이고, 동시에 4억 8,400만 톤이라는 생산량은 국내 수요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을 증가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중국 농업이 국민경제의 요구를 기본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려면 여전히 농업지원 강화, 농촌의 기

초시설 건설, 농업과학기술 진보 등 농업성장방식을 전환하여 현대적 농업으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2) 우리는 반드시 현실적이면서 객관적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격차는 민족의 현대화된 사회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불리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도시와 농촌의 격차문제를 신중하게 대응하여 격차축소에 노력해야 합니다. 며칠 전 리더수이(李德水) 국장이 공표한 통계치가 생각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입니다. 작년 전국 농민들의 1인당 수입은 3,255위안이고, 도시 주민들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0,493위안으로서 절대격차가 7,283위안, 상대격차가 3.22 : 1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격차를 개혁초기와 비교했을 때 확대된 것이지 축소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혁초기 중국 도시와 농촌 1인당 수입수준은 모두 낮은 수준이었으나 1978년에 농민 1인당 소득은 134위안, 도시 1인당 가처분소득은 343위안으로서 절대격차는 209위안 상대격차는 1 : 2.57 이었습니다. 현재 도시와 농촌주민의 소득격차는 7,000위안에 달하며, 상대수입격차도 3.2를 초과하였습니다. 이는 사회 각층의 높은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중공중앙과 국무원에서도 특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한 측면은 이러한 도시와 농촌간 격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는 상당히 긴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문제의 심각성에서 여러 방면의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른 한 측면으로는 경제소득격차 뿐만 아니라, 교육, 위생, 문화 등과 같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면에서도 도시와의 격차가 상당히 큼니다. 이러한 격차는 심지어 소득측면 격차를 초과하였습니다. 사회주의 신농촌을 건설하는데 아주 중요한 측면에는, 교육, 위생 등의 개선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3) 중국은 농업·농촌발전을 지지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초보적으로 갖추

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 일부 통계수치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통계수치로부터 알 수 있듯이 과거 10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중국 경제는 급속하게 성장하였습니다. GDP, 정부재정수입, 사회투자규모 모두가 5년 내에 배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이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빠른 발전을 실현한 것은 커다란 성과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빠른 성장 속에서 농촌이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 지가 중공중앙, 국무원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4) 중국 경제성장에서 기본방침을 실현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은 국내 수요를 확대하는 방침입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외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국제 시장을 확대하여야 하지만 중국은 13억 인구의 방대한 국가로서 국내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최근 경제성장으로부턴 볼 때 경제학자들은 보통 성장에서 3대 차량을 이야기 합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 소비, 국제무역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투자와 국제무역이 중국 GDP 성장에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하였고, 반면 국내수요 성장이 가지는 역할은 앞 두개보다 적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국면이 형성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농촌지역의 시장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농민들의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농촌에서 내수를 개척하려면 중국 인구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이 하루속히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충분한 구매력을 갖추어야만 중국 시장은 진정으로 개척되고 국내수요를 확대하는 방침도 실현될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유구한 발전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 지금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제안하는 취지는 도시와 농촌 간의 이러한 발전격차를 점차 축소하여 농민과 도시주민들이 모두가 국민으로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성과를 공평하게 수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공평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신농촌건설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에 어떤 목표, 내용, 임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어떻게 추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배포한 자료에 이미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이 5개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신농촌건설은 완전하고 시스템적인 내용이며, 농촌의 일부분의 건설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5중전에서부터 제안되었던 신농촌건설의 전반적인 요구는 다섯 가지 키워드입니다. 농촌보도 기자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생산 발전, 풍요로운 생활, 농촌 문명, 청결한 농촌, 민주적인 관리’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경제 발전, 농민소득 제고, 삶의 질 향상, 농촌의 전반적인 모습과 환경 변화, 농민 자질 제고뿐만 아니라 농촌 관리, 민주화 추진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업추진으로 말하면 금년 ‘1호문건’에서도 명확하게 제안하였겠지만 5개 측면에 대한 건설(정비)을 조화롭게 추진하는데 물론 첫째가 경제건설입니다. 둘째는 농촌의 정치적 민주화, 셋째 문화 건설, 넷째 사회 건설, 다섯째가 기초 지자체 단계의 당조직 정비입니다. 기초단계 당조직은 농민들을 선도하여 신농촌건설을 추진하는 진정한 지도력이 되어야 합니다.

(3) 신농촌건설 추진에 당 중앙에서는 5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는 신농촌건설을 추진하려면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원칙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경제실력이 없으면 실행 과정에 농민들의 부담을 증가할 수 있고 심지어 부채를 증대시킬 수 있고, 또 추진하였다고 해도 장기간 지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경제발전, 농민소득 성장을 기초로 실행하여야만 농촌모습을 바꿀 수 있고, 장기적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촌의 기본경영제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가족경

영체제를 기초로 합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것으로서 신농촌건설을 실행한다고 하여 가족경영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농촌을 도시와 비교했을 때 낙후한 면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것부터 착수해야 할지에 대해 1호문건에서 명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사람을 기본으로 합니다. 농민들이 가장 희망하고 절박하게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생산·생활 가운데 존재하는 현실적인 문제부터 착수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방에서는 도로가 개통되지 않아 도로공사를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어떤 지방에서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전기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바랄 것이며, 기타 TV 시청, 교통문제, 청결한 식수 등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서 보편적으로 관심이 있는 교육과 위생문제도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과학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통일적으로 수립하고, 임무는 한 조항, 한 조항씩 집행하며, 사업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등 반드시 현장 중심으로 출발하는 원칙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른 지방의 경험을 맹목적으로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는 사회 각층의 역량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주로 3개 계층의 역량입니다. 하나는 농민들이 자신의 정원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우선 농민 동원입니다. 농민들의 적극성을 유도하여 그들이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촌건설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 능력이 증대하였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도시지역의 기업, 도시주민들을 동원하여 최대한 농촌 발전을 위해 공헌하여야 합니다.

(4)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은 반드시 ‘5要 5不要’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실질적인 효과를 추구하고 형식주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은 과거에 기초단계와 사회 각층에 일부 좋지 않은 기법들이 형성되었습니다. 보통 한 가지 큰 안전이 제안되면 일부 지방에서는 표면적인 변화만 추구하고 실제적인 효과를 추구하지 않았었습니다. 신농촌건설에서 중

양은 반드시 실질적인 효과를 추구하고 형식주의를 추구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체의 실질적인 부담능력으로부터 출발할 것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맹목적으로 높은 수준과 비교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도 TV 방송을 통해 보았을 것입니다. 신농촌건설에 대해 보도하면서 많은 전형적인 아름다운 농촌을 소개하였는데 그들이 건축한 집들은 도시 건축물보다 아름답고 농민들이 살고 있는 집들도 장관들이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았습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사례는 확실하게 그들이 장기간 노력한 결과이며, 특수한 배경과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농촌에서 이와 같은 전형적인 사례를 그대로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맹목적인 추구는 농민들을 힘들게 하고 농민들의 재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실정에 맞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각 지방의 농촌발전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어떻게 자신의 실제상황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는지는 중국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특히 신농촌건설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왜 신도시건설이 아닌 신농촌건설인가. 신농촌건설이라고 하면 건설이 완공되어도 여전히 농촌이고, 농민들의 생산생활에 편리한 점이 있어야 하며, 농촌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농촌의 그러한 양호한 전통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넷째, 반드시 농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먼저 진행 하고, 어떤 부분을 나중에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하여야 하며 강제적인 명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인도와 지지를 하도록 하고 대신하여 도맡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현지 정부실력이 좋거나 혹은 현지에 몇 개 기업의 사장들이 출자하여 농민들을 도와 집을 짓는 것도 좋지만 중앙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신농촌건설 과정에 또 다른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새

로운 유형의 농민을 양성하고 농촌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자질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신하여 도맡아 하지 말고 인도하고 지원하여야 합니다.

(5) 5대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농촌생산력 발전, 둘째, 농민의 생활수준 제고, 셋째, 농촌 기초시설 개선, 넷째, 농촌사회사업 발전, 다섯째, 기초단계 민주화 전진 등입니다. 수억의 농민들에 관련되는 대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중앙에서 수차례 반복하였듯이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요구에 따라 추진하여야만 가능하고 농민 스스로만 진행하도록 하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됩니다. 이러한 큰 배경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5개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1) 정부투자자로서 말할 때 ‘공업이 농업을 살리고, 도시가 농촌을 지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가 농업·농촌에 대해 투자를 증가하는 구조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재정지출이든지 아니면 국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든지, 또한 각종 금융기구의 융자든지 모두 점차적으로 증가하여야 하며, 동시에 하나의 농촌을 지지하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구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2) 당과 정부의 모든 부문에서는 자신이 신농촌건설의 책임과 임무를 숙지하여야 하며, 상호간 협조와 협력 하에서 신농촌건설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과 정부에는 상당히 많은 부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문도 도시만을 위해 설립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부문에 신농촌건설에서 자신의 책임과 임무가 있는 것으로 이를 반드시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3)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그들 자신의 아름다운 정원을 건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는 격려구조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4) 전체 사회가 신농촌건설에 광범하게 참여토록 유도하는 구조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5) 신농촌건설의 최종목표는 도시와 농촌의 2중구조를 변화시키는 경제와 사회의 관리체제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려면 물론 상당한 기간 동안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1호문건이 채택되기까지의 결정과정, 목표, 추진방향 등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웨이민

방금 천시원 부주임이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도 모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기관을 밝히신 후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합중(合衆)국제사 기자

세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업이 농업을 이끌고 도시가 농촌을 이끌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6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두 번째, 부주임이 소개한 ‘5要 5不要’, ‘5대 목표’에 민주적으로 추진하고 강제 명령은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제 명령이 농촌에서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되는지요? 세 번째, 농촌에서 기초 지자체 단계의 민주화는 어떻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천시원

1호문건에서 여러분들도 모두 보았듯이 투자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는 세 가지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농업예산은 전년도보다 높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고정자산투자 중 농촌에 사용되는 비중은 전년도보다 높아야 하며, 세 번째는 국가의 기본건설투자 중 농업의 생산생활조건을 개선하게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전년도보다 증액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증가하여야 하는가는 다음달 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가 끝나면 예산보고서가 발표되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강제 명령에 대해서는 저 자신은 조세공과금개혁 이후 종전에 비해 경감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지방에 존재하다고 생각합니다. 1호문건에서 민주적으로 추진하고 강제적으로 명령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 등 기층 민주화에 대해서는 80년대 중반 전인대에서 ‘촌민위원회조직법’을 제정, 촌민자치제도를 확립하고 있는데, 우리는 농촌에서 정치 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여년의 발전을 통해 이제 일정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농촌에서 촌 행정업무를 공개하는 민주관리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촌에서 추진하는 행정업무 특히 재무상황을 촌민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농민들이 촌 업무에 더 많이 참여하고 감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한 신농촌건설에서의 민주적 관리를 포함하였고, 중앙정부가 기층 민주화에 대해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중앙TV기자

현재 사회주의 신농촌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방에는 이러한 행위가 존재합니다. 일부 지자체가 촌민들을 원래 거주하던 자택에서 촌에서 새로 건축한 아파트로 강제 이주시켜 거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요? 이러한 방법이 사회주의 신농촌건설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천시원

저도 이와 같은 현상을 주의하여 보았습니다. 일부 지방에서 최근 농촌에서 소공동체를 건설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전제에서 일부 촌을 합병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이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건축합니다. 지역별 사정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우선 일률적으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구체적으로 분석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첫째, 그 지역에서 실행하는데 경제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이와 같은 실행으로 농민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혹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농촌의 부채를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문제입니다. 경제적 조건이 없으면 방금 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강제성 명령인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법률이 부여하는 농민의 권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농민의 주택지는 법에 따라 규정되었고, 장기간 사용하도록 인정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농민들은 주택지 근처에 그들이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지가 있습니다. 만약 합병을 한다면 일부 지방에서 그 토지를 수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련의 법률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법적 절차와 규정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합니다.

셋째, 농민의 거주조건은 농민들의 생산과 생활에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일부지방에서 십여층 혹은 이십여층 되는 아파트를 건축하여 농민들이 낮이나 호미를 들고 불편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농민들은 쥐와 같은 썩아들 물건들이 있고, 또 일부 농민들은 가금, 가축 등을 길러야 합니다. 때문에 신농촌건설은 농민들이 반드시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름답게 건축하여도 사용하기 불편하면 제가 보기에 농민들도 만족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홍콩 봉황위성(鳳凰衛視)방송 기자

한 통계수치를 보았는데 현재 토지수용 문제로 발생하는 농촌의 집단시위 사건이 농촌지역 시위중 65% 이상을 차지하며, 적지 않은 사건들이 경찰과 촌민들의 유혈 충돌까지 발생하고 있어 토지수용 분쟁이 현재 농촌지역에서 가장 불안정한 요소, 핵심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에서 신농촌건설을 제안하면서 어떠한 조치를 실시하여 농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토지를 잃은 농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천시원

공업화 과정에서 농민의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부 모순들은 확실히 우리 사회의 높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농촌지역에서 사회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업발전 기초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매년 농민들로부터 수용하는 토지는 20만 ha 정도입니다. 공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토지수용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모순을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경지 감소와 농업발전 확보, 국가식량안전보장 문제입니다. 둘째,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들의 경제적 보상문제입니다. 셋째는 토지를 잃은 농민들의 취업과 사회보장문제입니다.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가능한 한 경지를 적게 점유하여야 하며, 정부는 엄격한 경지보호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토지를 잃은 농민에 대한 보상문제는 2004년말 국무원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농민들에 대한 보상표준을 마련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잃은 농민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배치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고, 동시에 토지를 잃은 농민들을 사회보장제도에 전부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수용제도 자체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건설용지는 전부 국가에서 독점하는 것인지, 국가에서 징수한 후 개발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지자체가 사용하는 토지가 건설시장에 직접 진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잘 다루지 못하면 중국의 귀중한 토지자원을 대량 상실하게 됩니다. 때문에 합리적인 제어장치가 없으면 개혁은 점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수많은 법률문제가 관련됩니다. 현재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 토지를 잃은 농민들에 대한 보상표준 확립, 둘째 토지를 잃은 농민들에 대한 취업배치와 훈련, 셋째는 토지를 잃은 농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등입니다.

금융시보(金融時報)기자

첫째, 신농촌 건설과정에 농민들이 양적으로 감소될지? 둘째, 토지매매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농민들은 도시주민들이 주택을 팔고 사는 하는 것처럼 자신의 농지를 매매할 수 있는지요? 이렇게 된다면 도시와 농촌간 토지가격 격차가 크지 않을 것이고, 또한 지방 공무원들도 농지를 비농업용 토지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부패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시원

국가가 발표한 수치와 통계국의 수치를 종합하면 농민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향후 신농촌건설 이후 계속 감소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통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호적에 대한 통계입니다. 호적으로 파악하면 중국의 농촌인구는 현재 9억 4,000만 명입니다. 둘째, 현실적인 거주지 통계입니다만, 현재 실제로 농촌에 장기 거주하는 농민은 7억 5,000만 명 정도입니다.

이 통계로부터 2억 정도의 농민들이 노동취업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행정구역의 변화로 실제 농촌에 있지 않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제가 보기에 향후에도 계속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두 가지 현상을 설명해야 합니다.

하나는 농촌을 떠난 농민들이 모두 기회가 있거나, 혹은 정부가 이들 모두가 대도시로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도시의 기초시설과 취업조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대도시로 진입하여 사업하는 농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농민들이 인근지역에서 타산업에 이전하여 취업할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도시화과정에서 농민들의 비중이 끊임없이 감소하고 있지만 중국은 인구대국이기 때문에 20년 내지 30년을 지나 도시화가 60% 수준으로 높아져도 농촌에는 많은 인구가 있을 것입니다. 40% 인구가 농촌에 거주한다고 했을 경우 2030년 전후 중국 총인구가 15억이면 농촌에 6억 인구가 거주하게 됩니다. 때문에 6억 인구의 향상된 생산생활조건을 위해 우리는 신농촌

건설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방금 말했습니다. 중국의 헌법규정에 따르면 토지소유권은 매매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저는 신농촌 건설과 농민들의 자유로운 토지매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향후 토지수용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는 더욱 연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신경신문(新京報)기자

금년은 '11.5'의 첫해입니다. 농업세가 전면 면제됩니다. 천 주임이 기자회견에서도 제안하였듯이 농업세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순은 많이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의 예산부족문제가 있으며, 또 다른 형태의 농민부담 증가문제 등입니다. 중앙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천시원

주로 세 가지 조치인데 현재 모두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 중앙과 성시 정부의 재정에서 기초 지자체로의 이전을 증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 2006년 중앙정부에서 농업세 개혁을 위해 기초 지자체에 지불한 이전지불은 780억 위안입니다. 성과 시급 정부가 기초 지자체에 대한 이전지불은 250억 위안 정도로 예측합니다. 이 두개를 합산하면 1,000억 위안을 초과합니다. 이를 과거 농민들의 부담과 비교해 보면, 세금개혁 전 농민들의 부담은 1998년 농민의 전체 부담은 1,200억 위안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상급 정부가 기초 지자체에 지급하는 이전지불 가운데 100여억 위안 정도 부족합니다. 둘째, 이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 지자체의 기능 전환과 향진정부에 대한 개혁과 인원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진정부의 기능전환, 기구와 인원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 한 농민부담 증가의 가능성에 대해 중앙정부는 농민부담을 감소하는 방침을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다음 4개 제도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업과 관련되는 비용징수에 대한 공시(公示)제도를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농민들의 재배활동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타 방면에 아직 일부 비용징수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관개용수, 트랙터운송 도로비 등입니다. 일부비용을 얼마 징수하여야 하며, 어떤 비용은 징수 가능한지를 반드시 농민들에게 공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농민의 경제부담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비 입니다. 농촌학교에서 1회성 비용징수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중앙에서 규정한 금액만을 징수하도록 하고, 그 금액만 지불하면 해결되도록 합니다. 이 제도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중서부지역의 성급에서는 농촌의무교육 학생들의 학비를 전부 면제하고,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비 부담이 해결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 기초 지자체의 부담에서 큰 부분은 죄송하지만 언론과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신문잡지들을 정기 구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문잡지 구독료에 대해 기준액을 정해 원하지 않는 신문잡지를 신청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 만약 농민부담을 가중시킨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해 책임추궁제도를 실행합니다. 농촌민주화 추진, 업무공개제도 등을 통해 농민들의 부담증가를 억제할 자신이 있습니다.

신경신문사(新京報)기자

천 주임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일부 소식에 따르면 전인대는 농촌금융합작법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확실하다면 현재 추진 진도와 이 법률이 언제 시행될지 알고 싶습니다.

천시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인대에서 입법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농촌합작 경제조직법’이며, 아직 초안 작성 과정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농촌합작금융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공포한 1호문건에서 언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부문에 관한 감독규칙을 제정한 후 농촌지역에 다양한 농촌금융조직을 허용하게 됩니다.

로이터(Reuter) 통신사 기자

1호문건에서 현재 많은 자금이 농촌 특히 농업발전에 사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농촌정부의 금융상황, 재정 상황에 대해 주임님은 금방 일부 농촌의 기초 지자체에 많은 부채가 있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천시원

금융이 농업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부터 보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농촌금융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는 신농촌건설에서 연구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금년 1호문건에서 지적한 농촌금융을 개혁하고 발전하는 내용과 비중은 최근 3개 1호문건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여러 측면과 관련되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인정할 수 있는 하나는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추진하면서 농촌금융제도를 끊임없이 개혁하고 완성하여 농촌에 더 많은 금융 지원을 얻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농촌의 부채문제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이는 확실히 현재 농촌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부채문제에 대해서는 복잡한 원인이 있는데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전에 농촌에서 기초시설, 사회사업을 포함한 많은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투자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학교, 도로를 재건축하는 등은 주로 농민에 의존하였습니다. 일부 부채는 이런 형식으로 조성되

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향진 정부와 촌급 조직의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투자주체라고 잘못 생각하고 은행에 대부금을 받아 기업을 창업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기업을 투자담보로 한 결과 기업경영이 온전하지 못해 파산하게 되면서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제도가 엄격하지 못한 원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사람들이 대부금을 받아 시찰을 떠났지만 실제로는 여행을 다니고 심지어 먹고 마시는데 소비하였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측면의 원인입니다. 때문에 1호문건에서는 금년에 우선 이러한 부채를 청산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제안하였습니다. 총량이 얼마이며, 어떤 원인으로 조성되었는지, 채권채무관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실태가 파악되어야 중앙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방에서도 실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연합조간신문(聯合早報)기자

앞서 천 주임이 중국에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경지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보호를 하고 있는지? 또한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이 표준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천시원

그 엄격한 수준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을 보시면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농지를 도시공업 건설용지로 전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5단계 정부 중 3단계 정부가 아무런 심사권한이 없습니다. 향 정부 현 정부와 시 정부는 모두 없고, 다만 중앙정부와 성급정부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급 정부는 토지심사권한은 있지만 그것은 농지가 건설용지로 전용될 경우인데 부여한 권력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첫째, 기본 경지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성급 정부는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둘째, 비기본 경지를 심사비준 할 경우 성급 정부의 최대 권한은 35ha입니다. 셋째, 황무지를 심사비준 할 경우 성급 정부는 75ha까지 권한이 있습니다. 기본 경지는 반드시 중앙 정부가 심사비준하며, 방금 제가 말했던 보통 농지가 35ha, 황무지가 75ha인 이 수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모두 중앙 정부가 직접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토지범죄에 대한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조항은 다른 국가들에서 쉽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토지범죄에 대해 3개 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작지 파손죄, 두 번째 위법토지 매매죄, 세 번째, 사리사욕, 위법토지 심사비준죄인데, 이는 정부 공무원과 관련됩니다. 이 두개 법률에서 토지문제 관련 규정을 볼 때 제도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가장 엄격한 경지보호제도를 실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홍콩 대공보(大公報) 기자

금년도 중앙1호문건은 농업문제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수억 농민들이 아주 기뻐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농촌도시화건설에서 중요한 문제는 농촌호적개혁 문제입니다. 향후 농촌호적을 도시호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증가 폭은 매년 어느 정도입니까?

천시원

우선 호적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소도시와 진의 호적은 실제로 일찍부터 해결되었습니다. 공안부에서는 2002년에 소도시, 진과 현급 시의 시내지역에 진입하는 농민들에 대해 그들이 안정된 ‘주거지’가 있고 안정된 ‘취업’ 혹은 안정된 ‘수입원’이 있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전입 혹은 개인전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地級) 시와 성소재지 도시에서도 호적제도를 이미 기본적으로 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저우(鄭州) 성소재지, 저장(浙江)의 지급시인 후저우

(湖州) 등에서도 이미 거주지, 수입과 취업 면에서 아까 말했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호적제도 개혁이 중앙정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각 지방에서 당해지역의 실제상황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적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이해관계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호적제도를 이처럼 신중하게 간주하는 것은 호적제도가 중국 고유의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국가들에서 호적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과거 계획경제체제하에서 호적제도에 많은 수혜 사항을 부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호적이 있어야만 도시의 기업이나 기관에 직원공모 신청을 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호적이 있어야만 도시에서 주택이나 사회보장을 포함한 각종 기회를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체제하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개혁과정에서 이러한 이익은 차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일부 농민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들은 도시호적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중요한 원인은 도시호적을 가진다고 해도 도시의 주택을 분배하지도 취업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또한 도시 사회보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농민들은 아무리 싸도 돈 내고 필요 없는 종이를 사라고 한다면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호적제도 개혁은 각 지역의 특수성이 개제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귀웨이민

지금까지 중국 농촌이 안고있는 다양한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향과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2006년도 1호문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자회견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 중국농업정보망(<http://www.agri.gov.cn>)